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성균관대, 인공지능 융합해 산업 경쟁력 높인다

- 29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원예·특용작물 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 협약
- 농생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 기술 연계 협력
- 원예·특용작물 산업 경쟁력 제고, 미래 대응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이 6월 29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원예·특용작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한 방대한 농생명 데이터와 대학의 첨단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연계해 미래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원예·특용작물의 부가가치 제고 연구 기반을 공유하고, 산업 현안 관련 기술 개발에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원예·특용작물 유전자원, 바이러스 정보, 기능성 물질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 생명공학 분석 기술을 보유한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은 특화된 첨단 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원 등을 정밀 분석하고 산업적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한 핵심 농생명 데이터가 대학의 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융합되면 유용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원예·

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붙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성균관대 생명공학대학 업무협약 계획(안)

|  |                    |     |     |                    |
|--|--------------------|-----|-----|--------------------|
| 담당 부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br>기획조정과 | 책임자 | 과 장 | 김옥태 (063-238-6100) |
|  |                    | 담당자 | 연구사 | 유 진 (063-238-6121) |
|  |                    |     |     |                    |



**□ 추진배경**

- 인공지능(AI)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 융합을 통해 원예·특용작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안 대응 기술 개발 필요

**□ 추진개요**

- 일 시: 2026. 6. 29.(월), 11:00~11:30
- 장 소: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61동) 2층 학장실
- 참석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장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5명): 김대현 원장, 김옥태 과장, 이세원 과장, 강석범 과장, 김진숙 과장
  - \*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6명): 조재열 학장, 이종성 교수, 박우람 학과장, Balachandran Manavalan 교수, 박계원 교수, 박범수 교수

**□ 협약내용**

- 원예·특용작물 유전자원·바이러스, 특용작물 유래 기능성 물질 정보 등 공유
- 인공지능(AI) 기술 등 활용 자원 분석, 산업화 지원 연계
- 장비 등 연구 인프라 공유와 인적, 학술적 정보 교환

**□ 세부일정**

| 시 간         |     | 행사내용      | 비 고       |
|-------------|-----|-----------|-----------|
| 11:00~11:05 | 5”  | 일정, 내빈 소개 | 학장실       |
| 11:05~11:15 | 10” | 개회, 인사 말씀 | 각 참여기관 대표 |
| 11:15~11:25 | 10” | 업무협약 체결식  | 각 참여기관 대표 |
| 11:25~11:30 | 5”  | 사진촬영, 폐회  | 학장실       |